

우크라이나를 회복 시키소서!

지난 주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러시아는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던 나라지만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기회는 없었다. 하지만 지난 세월동안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만나 본 사람들은 거의 다 믿는 성도들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늘 그 나라에 대한 좋은 느낌과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나라를 잃을 위기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18-60세 까지 남성들은 나라를 위하여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신문에는 잘 나와 있지만 않지만 그곳에서 나오신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보면 그들이 온 힘을 다하여 나라를 잃지 않기 위하여 싸운다는 것이다.

그런데 엿그제 두 손님이 가게에 찾아 왔다. 그들은 그리 비싸지 않은 음식을 시키고 두 사람이 기도를 하고 먹는 것이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나라 사람 같았다. 기도를 하고 먹는 것과 인상착의가 그런 것 같아 하던 일을 멈추고 밖으로 나가서 말을 붙여 보았다. 그런데 나와 아내가 생각했던 것이 맞았다. 오순절파 성도들이었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트럭을 운전하는 캘리포니아에서 온 사람들인데 나도 믿는 성도라고 말하고 어제 밤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노라고 말했더니 큰 감동을 받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얼마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악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것인지를 서로 이야기하며 점심식사를 마친 후 헤어지면서 몇 번을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들은 떠났다.

마음이 많이 아팠다. 왜 그렇게 아팠는지 모른다. 실은 눈물이 나왔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두 사람들을 위하여 만두 몇 개를 더 튀겨 주는 것뿐이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답답했을까? 왜 이리 세상은 악하고 괴로운 일들이 늘 생겨나는 것일까? 악이 승하고 선이 망하는 것 같은 것을 볼 때마다 답답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결국에는 믿는 성도들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도록 만드신다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인도하실 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왜 내 마음이 낙망하며 눈물을 흘리는가? 하나님이 우크라이나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우크라이나 두 형제들이 한 말이 기억난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이길 힘을 주시면 남아있는 우크라이나의 형제들이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히려 승리할 것을 믿는 다고 했다. 참으로 귀한 형제들을 만났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겠다. 특별히 믿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하여....